

보여주기식 자전거도로 이제 그만 좀 만드세요

횡단보도 차임벨 소리 '목포의 눈물' 나왔으면

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청소년 의회' 만들어야

청소년들이 본 시정...참신·생생한 제안 봇물

“통학길이 위험해요. 인도와 차도 좀 구분해 주세요. 보여주기식 자전거도로는 이제 그만 좀 만드세요”, “육교에 내걸린 전편일괄적 (목포 홍보)플래카드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요”, “횡단보도 차임벨에서 ‘목포의 눈물’ 등 목포를 상징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 주세요”

목포지역 청소년들이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목포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목포시 행정에 대해 생생하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쏟아냈다. 청소년의 시각에 비친 '어른 중심'의 노후한 행정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28일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팀이 참가해 '목포시 청소년 의원 제도', '목포시민을 위한 자전거 대여 추진', '목포, 눈물에 감성을 입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장예진양 등 해인여자고등학교 학생 3명은 “축교동 일대는 목포해안여중·고, 덕인중·고, 흥일중·고 등 6개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등하교 시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인도와 차도 구분, 버스 배차 시간 조정 등을 건의했다.

덕인고등학교 전예찬군은 “각종 청소년 문제를 상정해 청소년 의원이 토론함으로써 지방자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우수한 정책은 목포시에 건의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명 내외로 '목포시 청소년 의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제1회 목포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쏟아진 아이디어

“내년 1월 시장과 간담회...정책 반영 노력할 것”



목포지역 청소년들이 지난 28일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회 목포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해 목포 시정에 대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발표·토론하고 있다.

년 문제를 상정해 청소년 의원이 토론함으로써 지방자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우수한 정책은 목포시에 건의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명 내외로 '목포시 청소년 의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채미주양 등 목포여자고등학교 학생 5

명은 “육교나 대교 등에 내걸리는 플래카드들이 전편일괄적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여향 목포 정서에도 맞지 않다”면서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이나 서체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횡단보도 차임벨도 '목포의 눈물' 등 목포를 상징하는 곡들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영양 등 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2명은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시간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참여 존” 개설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회를 주관한 김유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해인여고)은 “목포시가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참여시키는 모습이 부족하다. 시민의 일원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직접 건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내년 1월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0여명의 평가단 심사를 거쳐 '공중전화 부스 변화와 목포 환경문제 개선' 제안이 목포시장상을 받았고 '목포, 눈물에 감성을 입히다'와 '목포 지역 축제에 청소년 참여' 제안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1일 개막한 명랑특별전 전시작품들을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있다.

'명랑' 특별전 개막...내년 2월 14일까지

명랑해협의 유물과 이순신 장군 관련 보물들을 한 곳에 모은 전시회가 개막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6일 "내년 2월 14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실에서 '명랑(鳴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명랑해협의 발굴조사 결과, 1597년(선조 30) 전함 13척으로 일본 전함 133척을 격파한 명랑대첩에서 사용했던 무기류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과 '석환(石丸, 돌포탄)'을 비롯하여 고려 절정기의 최고급 청자항로 등이 발견됐다.

이번 특별전 '명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진도 명랑대첩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발굴된 주요 유물 250여점을 비롯한 격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유물과 자료 총 300여 점

이 총 4부로 나뉘어 전시된다.

제1부 '기적의 바다, 명랑' 코너에는 진도 명랑과 여천 해저에서 나온 '소소승자총통'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 주요 화포인 '중완구'(보물 제858호), 1591년 선조가 충무공 이순신에게 내린 전리좌사(全羅左使) 임명장 '사부유서(賜符諭書, 보물 제1564-6호)', 1597년 선조가 파직된 충무공에게 다시 내린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임명장 '기복수직교서(起復授職敕, 보물 제1564-3호)'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제3부 '성난 파도 속에서 피어난 꽃, 도자기' 코너는 명랑에서 발견된 '청자 기린 모양 항로', '청자 오리모양 항로', '청자 투각 당초무늬 붓꽃이' 등 최고급 청자부터 소박한 생활도자기 등을 선보인다.

목포=김종석기자 kjs0533@

DJ기념관 내년부터 입장료 안받는다

수학여행단·유커 유치 박차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기념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차 분회의에서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상징적 기념관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타 지역의 전직 대통령 기념관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념관은 지난 2013년 6월 개관 이후 성인 1인 기준 입장료 4000원씩을 받아 연간 1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번 무료 전환에 따라 앞으로 중고생 수학여행단이나 중국 등 외국인 관

객들을 집중 공략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초·중·고·대·일반으로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중학생 수학여행이 실시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또 인 바운드 여행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명호 기념관장은 "대다수가 단체 관람객들인데 관람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료로 운영되면 유커 등 더 많은 관람객이 기념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관장은 또 "앞으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민선 6기 국제교류 첫 결실

목포시가 민선 6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교류행사가 첫 결실을 맺었다. 특히 중국 방문단이 대양산단 투자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투자에 나설지다 관심이이다.

목포시는 6일 "중국 동강시 대표단 일행이 10일~12일까지 3일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동강시 대표단 일행은 양내내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3명, 국유기업 대표 1명, 요녕성 보화그룹 송치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3명 등 모두 18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박종률 목포시장의 동강시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 시장

경제협력 및 기업인 교류가 주목적이다.

방문단은 오는 11일 대양산단을 비롯한 수산식품지원센터, 세라믹 산단, 신항만 등을 시찰하고, 투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4일동안 동강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

당시 박 시장은 보화그룹 송치 회장과 면담에서 "그룹에서 대양산단 2만 평을 구입해 천연염 및 감 가공수출 공장을 세워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로 중국 북·중남

중 동강시 대표단 10일 방문 대양산단 투자 등 관심 주목

부 도시 백화점을 대상으로 공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송치 회장은 "연내에 대양산단 등 투자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목포를 현지답사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박 시장은 "대양산단 등 목포가 투자자 협력 발전위원회(이하 중화권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학계·통상·관광·해운·수산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중화권 위원회는 목포시 중화권 교류정책에 대한 전문과 분야별 교류협력 사업 선정, 중국 진출 전략 연구 등 중화권 교류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토대로 목포시는 향후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중화권 우호교류 협력 도시 확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 중국 관광 마케팅 추진 ▲중화권 해외 기관단체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차이나 광역협력체 구성 등 중·장기적으로 8개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대양산단 등 목포가 투자자 유치에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강시는 중국 동북지역 항구도시로 수산양식업, 원예업, 기계가공업, 전자공업, 물류업, 관광업 등 산업이 고루 발전한 도시로 108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고 그 중 40%인 41개가 한국기업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6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6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정 영 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저금리·노령화 시대 안정적인 투자 비법(API, 투자 등)**
 강사: 노 승 근 부동산전문강사
 -해럴드경제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 수상(2005)
 -서울경제TV 부동산플러스 토지 전문가로 출연
 -RTN 부동산경제TV(특집방송) 뉴트렌드 전일시대 전문 패널 출연
 -실전 부동산 세미나 및 상담 최다기록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4시~16시
 장소: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대강연장
 후원: (주)다와옥션 선착순 200명 마감 (부동산경제사이트 2개월 이용권 증정)

전화 062-268-8949 010-5613-1808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

- 선착순 동, 호수지정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편리한 교통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